



新羅 中古期の 護國佛教

Buddhism as a Doctrine for the Protection of the State in Silla(during the Period from 514 to 654 A.D.)

저자 (Authors) 장지훈
Jang Ji-Hoon

출처 (Source) [한국사학보](#) , (3·4), 1998.3, 9-37 (29 pages)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 (3·4), 1998.3, 9-37 (29 pages)

발행처 (Publisher) [고려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09078>

APA Style 장지훈 (1998). 新羅 中古期の 護國佛教. 한국사학보, (3·4), 9-3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9/25 11:5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中古期の 護國佛教

장지훈*

1. 서론

종래 三國時代 불교의 護國思想에 대하여 이것이 지배 계층의 특권을 옹호해 주는 사상이라는 견해가 있어 왔다.¹⁾ 이러한 입장은 유독 護國佛教思想에 대해서만이 아니고 三國時代 불교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三國時代 불교의 전반적 성격이 지배 계층의 특권을 옹호해 주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불교의 護國思想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三國時代의 불교가 이러한 것이 아니었고 불교 자체의 성격도 이러한 사상이 아니라고 한다면,²⁾ 三國時代 불교의 護國思想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대구 효성 가톨릭대 강사

1) 이기백·이기동, 1982, 『韓國史講座』 I (古代篇), 일조각, 251-253쪽.

이기백, 1987, 『新羅初期佛教와 貴族勢力』,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82쪽.

2) 다음의 논문에서 필자는 불교가 지배 계층의 특권을 옹호해 주지도 않았고, 불교 자체도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장지훈, 1995, 『佛敎의 政治理想과 轉輪聖王』, 『史總』 44.

장지훈, 1996, 『新羅中古期 諸王의 正法治國思想』, 『겨레문화』 10.

불교의 護國思想을 불교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복을 빈다든지 해탈과 같은 개인적 차원에 불교를 국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만이 불교의 본래 모습은 아니다. 불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上求菩提 下化衆生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 전자가 개인적 측면이라면 후자는 사회적 측면이다. 그런데 이 두 측면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는 因緣緣起의 법칙에 따라서 뉘뉘바뀌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上求菩提가 곧 下化衆生이고 下化衆生이 곧 上求菩提이다.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생을 교화해야 하고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구해야 한다. 따라서 下化衆生이라는 사회적 측면은 개인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이란 존재는 자신의 해탈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중생들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으로서의 下化衆生이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생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불교 護國思想의 의미와 통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護國의 의미는 비단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해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국토와 국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불교의 護國思想은 불교의 2대 목적 중의 하나로서 불교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고에서는 불교의 護國思想이 과연 지배 계층의 특권만을 옹호해 주는 사상이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고, 그것이 신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護國佛敎의 근본 사상

佛敎 護國思想의 근본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護法卽護國’이라고 할 수 있다.³⁾ 護法을 해야 그 결과 護國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法이란 말할 것도 없이 佛法이다. 佛法의 眞意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만 거기에 대한 果報로서 국가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이다. 『仁王般若經』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佛이 파사익왕에게 고하시되 내가 마땅히 滅度한 후 法이 멸하려 할 때 이 반야바라밀을 受持하여 佛事를 大作하면 일체의 국토가 안정되고 백성을 쾌락케 하리니 이는 모두 반야바라밀에 의함이니라……. 그런 고로 너는 마땅히 受持하고 독송하여 그 義理를 알지니라. 大王이여 내가 교화하는 바의 국토 중에 七難이 있거든 국왕은 이 난을 없애기 위하여 반야바라밀을 강독하면 七難이 곧 사라지고 七福이 곧 생겨서 萬姓이 안락하고 帝王이 환희하리니…….

밑줄 친 부분에 나와 있듯이 佛法을 이해하고 보호해야 국가가 보호되는 것이다. 이것은 『仁王般若經』의 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이 경은 처음의 序品에서부터 觀空品과 菩薩敎化品 및 그 二諦品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보살의 護佛果와 護十地行을 說하여 불법의 깊은 뜻과 그 聞解護持의 공덕을 자세히 밝히고 나서 護國하는 法用을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護國品の 例話에서 普明王이 百高座를 베풀어 法師의 설법을 듣고 法眼空을 얻어서 虛空等定을 自證하여 聞法悟解한 뒤에 難(죽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것에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⁴⁾ 『金光明經最勝王經』에도 다음과 같

3) 김영태, 1975, 「新羅佛敎思想」,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원광대 출판국, 116, 131쪽.

이기영, 1975, 「仁王般若經과 護國佛敎」, 『東洋學』, 5, 6~7, 16쪽.

4) 김영태, 앞의 논문, 116쪽.

이 나와 있다.

그때에 四天王은 佛께 사뢰어 말하되 이 경이 미래에 어느 국토, 성읍, 취락 등에 유포되어 있을 때 만약 그 나라의 국왕이 이 경전에 대하여 지심으로 聽受하고 청담공양하며 또 이 경을 受持하는 四部衆에게 공급하고 깊은 마음으로 옹호하여 고뇌를 여의게 하면 이 인연으로 우리는 저 왕과 모든 대중을 옹호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안은하여 憂苦를 여의고 수명이 증익하며 위덕이 구족케 하겠습니까. 만약 그 국왕이 경을 受持하는 四部衆을 공경하기를 부모같이 여겨 일체의 수요물을 공급하면 우리는 항상 그 왕을 수호하여 모든 有情으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무량한 藥叉諸神으로 더불어 이 경이 유포되는 곳에 따라가서 몸을 숨겨 옹호하여 留難이 없게 할 것이며 또 이 경의 설법을 듣는 사람과 모든 국왕 등을 호념하여 그 衰患을 없애고 모두 안은케 할 것이며 他方의 원적으로 하여금 모두 退散케 하겠습니까.

요컨대 佛法을 수호하는 지역의 왕과 백성들을 모두 보호해 준다는 것이다. 경전은 특히 王이 佛法을 수호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⁵⁾ 왕은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 지도하는 대표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국가에 곤란과 위난이 오는 것은 그 원인이 국가의 원수인 王者에 있다고 본다.

王者의 不德으로, 또는 王者의 於理不當한 施政으로 인하여 국가의 평화가 파괴되고 국민이 불안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다. 『金光明經 最勝王經』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 國中에 비록 이 경이 있으나 아직 일찍 유포시키지 않고 捨離心を 내며 듣기를 즐겨하지도 않고 또한 공양으로 찬탄하지도 않으며 四

5) 이기영, 앞의 논문, 7, 16쪽.

部衆의 經을 가지는 자를 보고도 존중하지도 공양하지도 않아서 도리어 우리들[四天王]과 그 나머지 권속인 無量諸天으로 하여금 이 깊고도 미묘한 法 들음을 얻지 못하여 감미로운 맛을 등쳐 버리고 正法流를 잃어서 위광과 세력은 없고 나쁜 마음이 늘어나서 人天이 損滅되어 生死苦海에 떨어져서 일반의 길을 등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우리 四天王과 모든 권속과 약차 등은 이와 같은 일을 보면 그 국토를 버려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나이다. 다만 우리만이 이 왕을 버릴 뿐만 아니라 국토를 수호하는 무량한 諸大善神들도 모두 버리고 떠나갈 것인데, 이미 버리고 떠나고 나면 그 나라에는 마땅히 여러 가지 재앙이 있고 國位를 상실할 것이며 일체 중생은 모두 착한 마음은 없고 오직 繫縛과 살해만이 있어 서로서로 讒認하여 무고한 자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므로 질병이 유행하고 혜성이 자주 나타나고 해가 두 개가 나타나고 흑백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 같은 상서롭지 못한 표징이 있으며 폭우와 악풍이 아무때나 일어나므로 苗實이 자라지 않아 항상 기근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원적이 침략하여 人民이 모두 고뇌에 빠져서 국내에 즐거운 일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⁶⁾

『金光明經』卷八에는 王法正論이라는 문단을 특설하여 국왕이 되는 자는 반드시 正法으로서 治國化民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 경에 산재되어 있는 王法正論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⁷⁾

- 1) 국왕이 되는 것은 正法에 의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法을 法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파멸하게 된다.
- 2) 正法으로서 국가를 다스리되 만약 아첨하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6) 김동화, 1976, 『佛敎의 護國思想』, 佛敎新聞社 出版局, 141~142쪽.

7) 위의 책, 145~146쪽.

如法히 다스려야 한다.

3) 국민의 악행을 如法히 다스려 물리치지 않는 것은 正理에 어긋나는 일이다.

4) 국민의 악행을 폐지시키지 않으면 非法이 더욱 늘어나서 간사함이 날로 더해진다.

5) 惡人是 벌로써 다스리고 보통인은 十善으로 化하여야 한다.

6) 아첨하는 자와 위선자가 행세하게 되면 他國怨賊의 침입을 받아서 국토가 파괴된다.

7) 왕이 正法을 버리고 非法으로 국민을 다스리게 되면 곡식과 과일이 익지 않아 국토가 기아에 빠지고 질병이 유행하게 된다.

8) 왕이 非法을 행하면 악당들이 서로 뭉쳐서 王位가 오래가지 못하고 따라서 국가가 패망하게 된다.

9) 王이 非法을 행하면 국내에는 편당이 생겨서 투쟁과 간사와 허위가 유행하게 된다.

10) 왕이 正法을 버리고 非法으로 국민을 교화하면 諸天과 善神이 모두 분노하여 그 국왕을 버리게 되므로 왕은 苦厄을 받고 국민은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가 이별하며 마침내 패가망신하고 그 국토마저도 멸망하게 된다.

11) 국왕은 正法王이 되어 非法을 따르지 말고 非法 친구를 따르지 말며 친한 자와 친하지 않은 자를 평등히 觀하여 국내에 편당이 없게 하여야 한다.

12) 국왕은 正法에 의하여 국왕이 된 것이므로 正理에 따라야 하며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非法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왕이 正法을 시행하면 그 나라는 평은 안락하고 발전하며, 왕이 正法을 시행하지 않으면 나라는 어지러워지고 위태로워져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불교 護國思想의 핵심 요체는 국왕이 正法을 시행하여야 나라가 보호받는다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⁸⁾ 여기서 말하는 正法이 佛法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불교 護國思想의 핵심 요체인 正法治國思想은 불교의 政治理想으로서 호국 경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경전들에서도 누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능히 法에 의지해 중생을 섭수하고 보호하며 안락케 하므로 이름하여 王이라 한다(『大薩遮尼乾子所說經』, 王論品).

正法을 이해함으로써 백성을 愛育한다(『諸法集要經』, 王者治國品).

왕의 다스림에는 당연히 正法으로써 하며 절도를 상실함이 없이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백성을 보살피야만 한다(『諫王經』).

王은 正法을 수호해야 한다(『諸法集要經』, 王者治國品).

만일 그대의 왕국이 명예를 추구하지도 욕망을 추구하지도 않고 法을 받든다면 진실로 대부분의 것이 이루어지리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불행에 빠지리라(『寶行王政論』).

그대가 이제 大國王이 되어 正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요, 邪法으로서 하지 말 것이며……(『勝軍王經』).

왕의 正殿에 여러 보물로 論座를 장엄하게 설치하여 국내의 지혜 있는 사문과 바라문을 초청하여 正法을 연설케 해서 그 뜻을 청문하고…… 무엇이 善法이며 惡法인가를 자문할 것이며……(『四十華嚴』 卷12).

석가모니는 코살라 국왕인 파세나디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고 한다.

대왕이시여, 法으로써 다스리고 非法으로써 다스리지 마시오 理으로써 백성을 다스리고 非理로써 백성을 다스리지 마시오 대왕이시여, 正法으로써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죽어서도 하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增一阿含』 51).

8) 위의 책, 143~146쪽.

이러한 正法治國思想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 평등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⁹⁾ 자비와 보시의 극치는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이와 같은 희생과 봉사의 상징적 존재를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국왕에게 보살행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국왕은 남을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다. 불교의 국왕관은 자신의 특권만을 옹호하는 존재가 아니라 일체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도모하는 존재이다. 자기의 신하와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 이상적인 왕의 모습이었다.¹⁰⁾ 따라서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왕의 권위나 신성함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帝王의 神聖함이나 국가의 존재 의의도 법에 의거하여 부여받는다. 국왕이나 국가는 본래 법을 실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권위나 가치의 기준은 국왕이나 국가에 있지 않고 영원하면서도 보편적인 법에 있다.¹¹⁾ 따라서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국가나 국왕에게 신성한 의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왕이란 존재는 초월적이고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왕도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왕도 마찬가지로 惡行에 몸을 맡기면 생전에 그 果報를 받음은 물론, 죽은 후에도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와 같은 국왕관이 제왕의 권위나 신성성을 강조하는 사상과 정반대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국왕이 아무리 세속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어도 역시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인에 공통하고 만인이 준수해야 할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¹²⁾ 그렇기 때문에 正法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나 크샤트리아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바이샤 또는 수드라 계급일지라도

9) 장지훈, 1995, 『佛敎의 政治理想과 轉輪聖王』, 『史叢』 44, 35~60쪽.

10) 中村元, 1969, 『宗教と社會倫理』, 東京, 岩波書店, 327~331쪽.

11) 위의 책, 323~324쪽.

12) 위의 책, 313~315쪽.

그가 正法을 시행할 수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正法을 시행하지 못하면 그가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라 할지라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에서 말하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혈통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正法을 시행하는 존재를 가리킨다.¹³⁾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 계급 내지는 四姓階級에 대한 기존의 의미를 四民平等, 인간 평등의 입장에서 완전히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經集』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태생에 의해서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천민이 되고
 행위에 의해 브라만도 된다.

출신에 의해 브라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출신에 의해 브라만이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행위에 의해 브라만이 되기도 하고
 행위에 의해 브라만이 안 되기도 한다.

행위에 의해 농부가 되고
 행위에 의해 하인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이 된다.

※ 대표적 호국 경전인 『金光明經』은 국왕의 신성성을 국왕의 의무를 실행하는 가운데서 구하고 국왕의 출신 혈통 등은 무시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즉 ‘인간이건 신이건 간다르바건 나찰이건 사람들의 惡行을

13) 『長阿含經』 6, 四姓經; 『經集』.

제지하는 자가 왕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金光明經』은 국왕의 신성성에 대한 의미와 내용을 완전히 달리 변화시켜서 주권자의 문제에도 불교의 평등관을 철저하게 적용했다.¹⁴⁾ 즉 태생이나 출신, 혈통 등이 무엇이건 正法治國을 실천하는 자만이 국왕으로서의 신성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正法을 무시하고 非法을 저지르는 왕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왕이나 왕의 대재상이라 할지라도, 극도로 포악해서 자비심이 없고 오로지 타인을 꺾박하려 한다면, 구도자는 힘과 동정심으로 이익과 안락을 줄 마음을 품고 그에 머무르며 그에 의거하여 많은 죄악을 짓게 하는 왕위, 권세, 지배권에서 왕이나 권력자들을 추방시켜 버려라.' 이와 같이 민중의 반항 윤리가 인정되고 있으며 결코 왕권이 절대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이것은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長阿含經』 卷22 世記經 本緣品에는 인간 사회에 왕이란 존재가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나온다. 이 설명에 의하면 왕과 백성의 관계는 평등한 관계인데, 다만 백성들이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왕을 선출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왕에게 위임한 계약 관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평등성에 입각한 請負式 契約관계에 불과하다. 이것은 근대 서양의 사회 계약설과 흡사하다. 이러한 계약설에 의한 國王觀에 있어서는 왕을 신성시하지도 절대시하지도 않는다. 국왕은 백성이 선출한 사람이며 조세란 백성이 국왕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봉급이다. 다시 말해서 백성이 국왕을 고용한 것이다. 물론 당시의 현실 사회에서 왕이 강대한 권력을 장악해서 백성이 전적으로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가 요구하는 국왕의 타당한 모습이 아니다. 적어도 불교 正法治國思想의 입장에서 볼 때 왕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백성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왕에게 내는 조세는 백성에 대한 봉

14) 中村元, 앞의 책, 311~312쪽.

15) 위의 책, 343쪽.

사의 대가로서 백성이 지불하는 임금인 것이다.¹⁶⁾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상 현실적으로 국왕에게 특별히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왕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正法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正法을 시행하지 못하는 왕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에 正法을 시행하는 王은 正法을 시행하는 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불교 護國思想의 근본 사상은 護法即護國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護法即護國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해야만 나라가 보호받는다 고 하는 사상이다. 따라서 불교 護國思想의 핵심 요체는 왕들로 하여금 正法治國思想의 중요성을 인식케 해서 그것을 국가 사회에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正法治國思想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 평등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의 護國思想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 평등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실천케 하기 위한 사상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교의 護國思想은 지배 계층의 특권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상이 아니다. 나라 전체 국민 전체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 護國思想의 진정한 의미이다.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한마디로 말하면 일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의 특권만을 옹호하고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국왕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왕이란 존재는 다만 正法을 실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권위나 가치의 기준은 왕에게 있지 않고 正法에 있는 것이다. 正法의 실천 여부에 따라 왕의 존재 의의가 달라지는 것이다. 왕의 존재 의의는 오직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다.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일반 백성을 위해 봉사할 때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 護國思想의 입장에서 불

16) 위의 책, 119쪽.

때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지배 계층의 특권이 아니고 일반 백성의 이익과 안락이다. 무게 중심이 완전히 다른 데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護國思想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3. 新羅護國佛教의 實相

護國儀禮, 護國寺刹, 護國三寶로 대별해서 사료에 나타난 新羅護國佛教의 實相을 살펴보겠다.

1) 護國儀禮

(1) 百座講會

百座講會란 百高座會, 百座法會, 혹은 百座道場 또는 仁王道場 등으로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데 갖추어 말하면 百高座(仁王經) 講法會라고 해야 할 것이다.¹⁷⁾ 이 百座講會는 仁王般若經에 있는 護國法用으로서 百高座를 설치하고 百法師를 청하여 仁王經을 강설하는 護國佛事이다. 신라에서 百座講會가 행해진 기록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진흥왕 12년 辛未에……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헤량 법사가 그 무리를 이끌고 노상으로 나왔다……. “지금 우리 나라는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아니하니 그대의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거칠부가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왕을 뵈니 왕이 僧統을 삼고 처음으로 百座講會와 八關法을 베풀었다(『三國史記』 44, 居柒夫傳).

B-1) 隋의 사신 王世儀가 황룡사에 이르니 百高座를 설치하고 圓光

17) 김영대, 앞의 논문, 113쪽.

등의 法師를 맞아다가 說經을 하였다(『三國史記』 4, 眞平王 35년 7월).

2) 진평왕 35년에 황룡사에서 百座會를 설치하고 비구를 맞아다가 講經을 하였는데 師가 上首가 되었다(『海東高僧傳』 2, 圓光傳).

3) 建福 30년 癸酉(진평왕 즉위 35년) 가을에 隋의 사신 王世儀가 오니 황룡사에 百座道場을 설치하고 여러 고승을 청해다가 說經하게 하였는데 圓光이 가장 上首에 자리하였다(『三國遺事』 4, 義解 圓光西學).

C. 왕이 병들었는데 의약과 기도가 효력이 없어서 황룡사에 百高座를 설치하고 僧을 모아 『仁王經』을 강독케 하고 백 명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三國史記』 5, 善德王 5년 3월).

D. 때에 국왕이 百座仁王經大會를 설치하고 널리 碩德을 찾았는데 本州에서 名望으로 그(원효)를 천거하였으나 諸德이 그 사람됨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하여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였다(『宋高僧傳』 4, 義解 元曉傳).

E. 왕이 太宗大王을 위하여 奉德寺를 세우고 7일 동안 仁王道場을 배풀고 죄인을 크게 풀어 주었다(『三國遺事』 2, 紀異 聖德王).

F. 京都에 지진이 있어서 民屋을 파괴하고 죽은 자가 백여 명이었으며 太白星이 달을 범하니 왕이 百座法會를 설치하였다(『三國史記』 9, 惠恭王 15년 3월).

G. 황룡사에서 齋僧을 하고 百高座를 설치하여 講經을 하였는데 왕이 친히 가서 이를 들었다(『三國史記』 11, 憲康王 2년 2월).

H. 왕이 병들때 국내의 獄囚를 赦하고 또 황룡사에 百高座를 설치하여 講經을 하였다(同書 同條 12년 6월).

I. 황룡사에 百座를 설치하고 친히 가서 講經을 들었다(同書 定康王 2년 정월).

J. 황룡사에 百座를 설치하고 친히 가서 설법을 들었다(同書 眞聖王 원년).

K. 제55대 경애왕이 즉위하여 同光 2년 甲辰 2월 19일에 황룡사에 百座를 설치하고 說經을 하였다. 겸하여 禪僧 삼백 명에게 음식을 먹

이고 大王이 친히 行香을 하고 불공을 드리니 이것이 百座通說禪敎의 시초이다(『三國遺事』 2, 紀異 景哀王).

이 가운데 中古期에 해당하는 것은 D번까지이지만 護國佛事로서의 百座講會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中古期 이후의 것도 인용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百座講會의 사례들은 대부분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C와 H에서 王病退治, F에서 天變地異에 대응한다는 목적이 비쳐 있을 뿐이다. 그런데 天變地異의 경우도 흔히 정치적 사건의 상징과 같이 여겨져 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F의 경우도 국가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I의 경우도 百座講會를 설치한 같은 달에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F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A와 B는 전쟁과 관련이 있다. A는 신라가 죽령을 넘어서 한강 상류 지역을 탈취한 뒤에 베풀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의 대외적인 발전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B는 2년 앞선 진평왕 33년에 隋에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를 치기 위한 圓光의 乞師表를 보낸 데 대한 答使가 왔을 때의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것도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¹⁸⁾ 이렇게 볼 때 百座講會의 설치 목적은 仁王經에 설해진 바와 같이 護國의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國難 극복, 王病退治, 天變地異의 소멸 등을 비롯한 국가 안녕의 기원을 위하여 百座講會가 베풀어졌던 것이다.

(2) 八關會

八關會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A. 진흥왕 12년 辛未에…… 해당 법사가 그 무리를 이끌고 노상으로 나왔다……. 거칠부가 같이 수레를 타고 돌아와서 왕을 뵈니 왕이 僧統을 삼고 처음으로 百座講會와 八關法을 베풀었다(『三國史記』 44,

18) 이기백, 1987,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53~54쪽.

居染夫傳).

B. 33년 10월 20일에 전사한 장병을 위하여 八關齋會를 外寺에 배풀고 7일 만에 그만두었다(同書 4, 眞興王).

C. 탑을 세운 후에 八關會를 배풀고 죄인을 풀어 주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九層塔).

이상의 세 가지가 신라시대 八關會에 대한 기록의 전부다. 그러나 고구려의 혜량 법사가 신라에 百座講會와 八關法을 始置하였다는 기록을 미루어서 八關會도 百座講會처럼 신라 一代를 통하여 많이 행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신라말 궁예가 八關會를 배푼 것이라는 가 그 이후의 고려에서 성행된 것을 보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의 八關會는 본래 개인적인 持戒儀式으로서 국가적인 護國行事와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즉 一日一夜만이라도 아라한의 마음과 같이 8戒를 수행하는 의식인 것이다.¹⁹⁾ 8戒란 다음을 말한다.

- ① 살생을 하지 않고 또 남에게도 하지 않게 하며 원한의 마음이 없이 항상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연민한다.
- ② 도둑질을 하지 않고 항상 배풀 생각을 한다.
- ③ 부정한 음행을 하지 않고 항상 청정하게 한다.
- ④ 妄語를 하지 않고 남도 하지 않게 한다.
- ⑤ 음주하지 않고 남도 하지 않게 한다.
- ⑥ 때에 맞게 식사한다.
- ⑦ 높고 넓은 자리에 앉지 않는다.
- ⑧ 가무 희락을 하지 않으며 몸에 치장하지 않고 향기나는 것을 바르지 않는다.

19) 김영태, 앞의 논문, 118쪽.

앞의 사료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持戒儀式이 신라에서는 국가적인 護國行事로서 베풀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中古期の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戒律을 바탕으로 하는 正法治國思想이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되면서 역시 戒律을 중시하는 八關會가 국가적인 護國行事로 발전된 것으로 생각된다.

2) 護國寺刹

中古期를 포함해서 신라 一代를 통해 가장 중요한 護國寺刹로서는 皇龍寺를 들 수 있다. 皇龍寺는 신라 최대의 寺刹로서 공사 기간만 해도 진흥왕 14년에서 30년까지 무려 17년이나 걸려 완공한 巨刹이다. 또한 이러한 공사 기간과 규모와 함께 국가에서 건립했다는 점에서도 신라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국가적 위치와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사찰이다. 중요한 護國行事인 百座講會가 거의 대부분 이 皇龍寺에서 베풀어졌다. 앞에서 인용한 百座講會에 관한 사료 가운데 A, D, F의 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皇龍寺에서 행해진 것이다. D가 만일 C와 동일한 사실을 말한다면,²⁰⁾ 이것도 皇龍寺에서 행해진 것이 된다. 아마 F의 경우도 거의 틀림없이 皇龍寺에서 행해졌으리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皇龍寺가 창건된 이후에는 百座講會가 항상 皇龍寺에서 베풀어졌다고 할 수 있었다. A의 경우는 皇龍寺가 창건되기 전이어서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이것도 皇龍寺와 무슨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²¹⁾ 이렇게 볼 때 護國佛教에서 皇龍寺가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護國三寶 중에서 九層塔과 丈六像 두 가지나 皇龍寺에 있었다는 사실 역시 護國寺刹로서의 皇龍寺의 중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善德女王 때의 八關會도

20) 이기영, 앞의 논문, 511쪽.

21) 이기백, 앞의 논문, 54~55쪽.

九層塔을 세운 뒤에 皇龍寺에서 배풀어졌다고 한다. 皇龍寺가 국가에서 세운 신라 최대의 巨刹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護國佛教에서 皇龍寺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은 곧바로 신라사회에서 護國佛教가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라사회에서 護國佛教가 그만큼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皇龍寺가 中古期 초두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신라 中古期 사회에서 護國佛教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의를 말해 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서술하겠다.

3) 護國三寶

신라의 護國三寶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있다.

……후에 고구려 왕이 신라를 도모하려다가 말하기를 “신라에 三寶가 있어 침범할 수 없다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皇龍丈六과 九層塔과 진평왕의 天賜玉帶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침범할 계획을 그쳤다. 주나라에 九鼎이 있어서 楚人이 감히 북방을 엿보지 못하였다 하니 이러한 따위일 것이다(『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九層塔).

同書 1 紀異 天賜玉帶條에도 비슷한 내용이 전한다. 皇龍寺九層塔의 護國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전한다.

皇龍寺 護法龍은 나의 長子로 梵王의 명을 받아 그 절을 보호하고 있으니 본국에 돌아가 그 절에 九層塔을 세우면 이웃 나라가 항복하고 九韓이 와서 조공하여 왕업이 길이 태평할 것이요 탑을 세운 후에 八關會를 배풀고 죄인을 풀어 주면 외적이 해치지 못할 것이며……(『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九層塔).

4. 정치 사회적 意義

護國佛敎의 근본 사상은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해야 국가가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正法治國思想의 실천을 국가 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불교를 신봉하는 王이라면 자신의 統治行爲에 하나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당시의 왕들이 불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왕들의 統治行爲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우선 왕들의 불교 신앙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다만 신라 中古期 왕들의 불교 신앙이 매우 진지하고 두터웠다는 사실만 강조해 둔다.²²⁾ 진지하고 두터운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통치 행위에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은 실제 사료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백제의 경우 26代 聖王의 명칭은 轉輪聖王 명칭의 끝자를 따서 호칭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轉輪聖王이란 존재는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한 理想的 帝王이다. 신라 法興王과 眞興王은 머리 깎고 중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轉輪聖王이 彌勒佛 앞에서 머리를 깎고 귀의하는 것을 본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法興王의 불교 정신에 대해서는 이차돈이 죽기 얼마 전 이차돈과 나눈 대화에서도 느낄 수 있다. 즉 이차돈의 말에 대해서 왕이 말하기를, ‘살을 베어 저울에 달아 새 한 마리를 살리려 했고 피를 뿌려 생명을 끊어 일곱 마리 짐승을 붙잡히 여김이라. 나의 뜻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있거늘 어찌 무죄한 사람을 죽일까 보냐. 내가 비록 공덕을 지을지라도 죄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²³⁾라고 하고 있다. 살을 베어 저울에 달아 새

22) 다음의 논문에서 신라 中古期 왕들의 불교 신앙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다. 장지훈, 1996, 「新羅中古期 諸王의 正法治國思想」, 『겨레문화』 10, 41~55쪽.

23) 『三國遺事』 3, 元宗興法 厭觸滅身.

한 마리를 살리려 했다는 말은 龍樹菩薩 저술인 『大智度論』에 나오는 말로서, 과거에 인도의 尸毗王이 고행을 행할 때, 帝釋天王은 매로 화하고 釋帝桓因은 매추리로 화해서 매추리가 매에 쫓겨 尸毗王의 품속에 들었는데 왕은 매추리도 살려야 하겠고, 매도 굶게 할 수 없으므로 매추리는 놓아 보내고 대신 자기의 살을 베어 매추리 고기의 분량만큼 저울에 달아서 매를 먹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그 出典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짐승 일곱 마리를 구했다는 것이다. 이 인용 구절은 모두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 정신과 보시의 마음을 강조한 것으로서 자비와 보시의 정신이야말로 불교 正法治國思想의 근본 바탕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王에게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보살행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보살행의 실천이야말로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왕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근본 정신이다. 법흥왕이 이러한 구절을 인용했다는 것은 법흥왕이 평소에도 항상 그러한 정신을 자각하고 있고 실제로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의 이러한 정신이 정치에 실제로 반영된 것이 법흥왕 16년에 내린 殺生을 금하라는 분부였다. 不殺生은 불교 계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자비와 보시의 정신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한 계율이다. 자비와 보시의 정신을 근본으로 하고 있는 불교의 正法治國思想 역시 戒律이 기본 바탕이 되고 있다.²⁴⁾ 그래서 正法治國의 理想을 실천하는 轉輪聖王도 그 정치의 근본을 五戒에 두고 있다.²⁵⁾ 이렇게 볼 때 법흥왕 16년에 내린 禁殺生의 법령도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말들에서도 불교 정신을 정치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볼 수 있다. ‘내가 즉위한 때로부터 창생을 위하여 복을 닦고 죄를 없앨 곳을 만들려 한다.’²⁶⁾ 또는 ‘내가 부덕한 몸으로 大業을 이어 위로 음양의 조화가 부

24) 中村元, 앞의 책, 157, 324~325쪽.

25) 피야세나 닷사나야케, 정승석 옮김, 1988, 『불교의 정치 철학』, 대원정사, 160, 191쪽.

죽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환락이 없으므로 萬機의 여가에 釋氏風敎에 마음을 두고 있으나 누구나 더불어 일을 같이 할 것인가?」²⁷⁾ 이런 말들을 무조건 정치적 상투어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법흥왕은 三聖의 하나로서 聖王의 칭송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²⁸⁾ 『海東高僧傳』에 高僧으로 실릴 만한 인물이었던 만큼 이는 진지한 신앙의 발로였고 신앙을 바탕으로 한 正法治國思想의 실천 의지였다고 생각된다.

진흥왕 시대에는 인도 아쇼카 왕의 정치 사상과 업적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설화가 전해졌다.²⁹⁾ 이 설화의 요지는 일부 지방종교에 불과하였던 불교를 숭인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종교가 되게 만든 崇佛의 帝王 아쇼카 왕도 세 번씩이나 주조에 실패하고 또 南閻浮提의 모든 곳에서도 다 이루지 못한 佛像을 신라의 진흥왕이 북 한 번 울리고 훌륭히 이루었다는 것이다. 신라야말로 가장 훌륭한 불교국이며 진정한 佛緣國土라고 하는 자부심이 이 설화에 반영되어 있다. 이 설화를 통해서 진흥왕이 인도 아쇼카 왕의 치적과 정치 사상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아쇼카 왕도 이루지 못한 일을 진흥왕 자신이 이룩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쇼카 왕 못지않은, 또는 그보다 훌륭한 崇佛政治를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흥왕의 정치 사상 형성에는 아쇼카 왕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진흥왕은 네 개의 순수비를 남겨 놓고 있는데 이것은 아쇼카 왕의 행위를 본딴 것으로 생각된다. 아쇼카 왕은 자신의 정치 사상을 국민들에게 고지시키기 위해서 영지 내의 각지에 많은 石柱를 세워서 거기에 자신의 결의를 표명하여 국민이 진정으로 왕에게 공명해 주고 협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다.³⁰⁾ 아쇼카 왕의 정치는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근본 바

26) 『三國遺事』, 興法三 原宗興法厭觸滅身.

27) 위의 책, 同條.

28) 위의 책, 同條.

29) 위의 책, 塔像四 皇龍寺丈六.

30) 中村元, 앞의 책, 200~201쪽.

탕으로 하고 있다.³¹⁾ 그래서 그는 불교 正法治國의 이상을 실천하는 신화적 제왕인 轉輪聖王으로 칭송받고 있다. 실제의 아쇼카 왕과 허구의 轉輪聖王이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이들이 다같이 正法의 수호자요 실천자였기 때문이다. 진흥왕이 세운 네 개의 순수비 가운데 마운링비에는 轉輪聖王의 正法治國思想에서 나온 말로 생각되는 표현들이 있다.³²⁾ 이것은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진흥왕 정치의 바탕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진흥왕이 자신을 轉輪聖王에 비견하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轉輪聖王의 권위를 빌어서 자신의 왕권을 신성화·정당화하고자 한 시도였다기보다는 진흥왕이 轉輪聖王의 正法治國思想을 자신의 政治理想으로 추구하고자 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戒律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그래서 正法治國의 理想을 실천하는 轉輪聖王도 그 정치의 근본을 五戒 내지 十戒에 두고 있다고 하였다. 中古期에 戒律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의 영향으로 보인다. 『彌勒佛光寺事蹟』에 의하면 謙益은 聖王 4년(526) 인도에까지 가서 『律部』를 깊이 연구한 다음 귀국하여 聖王 때에 王命으로 국내의 名僧 18명과 더불어 『律部』 72권을 번역하였다. 그가 聖王의 열성적인 후원을 받았던 사실이라든지 聖王 스스로가 『毘曇新律序』를 지어 戒律의 力行을 강조했던 것은 戒律의 국가 사회적 관심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法王은 즉위한 해에 숨을 내려 殺生을 금하게 하고 民家에서 매를 놓아 기르는 것을 금하게 하며 또 어렵 기구를 태워 버리게 하였다. 新羅의 法興王도 16년에 살생을 금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眞興王은 처음으로 八關法會를 시행했는데 33년 10월에는 戰士士卒를 위하여 7일 동안 八關會를 베풀었다. 八關法이란 『八關齋經』 등에서 說하고 있는 諸

中村元, 李箕永 옮김, 1984, 『印度思想史』 上, 東國大附設譯經院, 96쪽.

31) 장지훈, 1995, 「佛敎의 政治理想과 轉輪聖王」, 『史叢』 44, 41~43쪽.

장지훈, 1996, 「新羅中古期諸王의 正法治國思想」, 『겨레문화』 10, 50~53쪽.

32) 장지훈, 1996, 「新羅中古期諸王의 正法治國思想」, 『겨레문화』 10, 51~52쪽.

惡과 不善을 關閉하여 청정한 正心 善行을 護持하는 八戒를 修習하는 佛의 正齋法으로서 聖八關齋 또는 聖八支齋, 八戒齋 등으로 불린다. 八戒란 不殺生, 不盜竊, 不習不淨, 不妄語, 不飲酒, 不犯齋, 不於高好床坐, 不習歌舞遊戲, 亦不著紋飾香熏塗身으로서 十善戒와 비슷한 도덕 규범이다. 善德王 때에도 또 하나의 八關會 기록이 보인다. 즉 자장 법사가 入唐하였을 때 太和池邊에서 만난 神人에게서 들은 말 가운데에 ‘本國으로 돌아가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우면 隣國이 항복하고 九韓이 內貢하며 王祚가 永安할 것이다. 塔을 세우고 나서 八關會를 設하여 罪人을 赦하면 外적이 능히 침범치 못한다’는 것이 있다.

智明法師를 전후하여 귀국한 여타 유학승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대우를 智明이 받았던 것은 그의 戒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9월에 高僧 智明이 入朝使 上軍을 따라 귀국하였다. 왕은 (智)明公의 戒行을 존경하여 大德으로 삼았다(『三國史記』 4, 眞平王 22년).

이것은 戒律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말해 주는 것인데 이를 두고 『海東高僧傳』 智明傳에서는 ‘王은 그의 인품을 우러러 사모하고 戒律을 추앙하고 귀중히 여겨 大德으로 포상하고 가까이 오기를 전하였다’고 쓰고 있다. 四分律羯磨記라는 저술을 남긴 智明이 戒律의 권위 자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³³⁾

善德女王 5년(636)에 중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국가적인 위기가 크게 고조된 同 12年(643)에 귀국한 慈藏이 皇龍寺의 寺主로서 大國統이 되어 신라의 佛敎를 총괄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다. 慈藏은 僧尼의 戒行을 비롯하여 사찰의 일상 생활을 점검하는 것을 제도화하였고 세속에 대한 교화의 결과 열 명 가운데 아홉이 受戒奉佛하게 되었다고 한다. 貞觀初年에 당나라에 들어가 자장과 함께 귀국했던 圓勝은 신라에서 律部를 강의함으로써 佛法을 널리 펴었다고 한다. 圓勝은 『梵網經

33) 신종원, 1992, 『新羅初期佛敎史研究』, 278쪽.

記』, 『四分律羯磨記』, 『四分律本叉記』 등 세 편의 저술을 남겼는데 모두 戒律에 관한 것이다.³⁴⁾ 이와 같이 中古期에 戒律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당시에 戒律에 바탕을 둔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새로운 統治理念으로 확립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에는 원광, 자장과 같은 승려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자장이 신라 왕통을 인도의 찰제리種(크샤트리아)이라고 했다는 것을, 석가의 권위를 빌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도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正法을 시행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正法을 시행하는 자는 누구나 크샤트리아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바이샤 또는 수드라 계급일지라도 그가 正法을 시행할 수 있으면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正法을 시행하지 못하면 크샤트리아 계급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불교에서 말하는 크샤트리아란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正法을 시행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크샤트리아 계급 내지는 四姓階級에 대한 기존의 의미를 四民平等의 입장에서 완전히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즉 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장의 주장은 왕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신라 왕으로 하여금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케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불교 승려의 이러한 노력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통치 이념을 확립케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이상으로 신라 왕들의 統治理念 확립과 정책에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 중대한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를 책임지고 경영 지도해야 할 왕의 입장에서 統治理念의 확립 문제는 가장 중요

34) 위의 책, 280쪽.

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당시는 무엇인가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 매우 요청되는 시기였다. 삼국이 정립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복 전쟁³⁵⁾과 古代國家의 발달로 인한 체제 개편으로 삼국의 사회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유대 관계, 사상적 문화적 가치 규범과 행동 윤리 등이 크게 해체되면서 변화되어 가는 사회 전환기였다. 따라서 국가 사회를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 윤리 등이 요구되는 시기였다.³⁶⁾ 특히 국가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불교를 신봉하는 왕들에게 새로운 統治理念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왕들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새로운 統治理念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특히 불교의 護國思想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불교의 護國思想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당시에 전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한 전쟁이라는 것이었다. 三國時代의 특징을 여러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쟁 상황이라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三國이 정립하면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전개하면서 한치의 땅이라도 더 뺏으려고 하는 영토 확장 사업이 벌어진다. 신라에 의해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삼국의 관계는 전쟁의 연속이었으며 잠정적 평화나 동맹 관계는 약세를 면하기 위한 일시적 수단에 불과하였다. 통일 이전 삼국의 국가 체제의 특징은 삼국이 모두 군사 체제 중심의 국가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전쟁으로 특징지어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왕의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외부 세력으로부터 영토와 백성을

35) 김정배, 1975, 「佛敎傳入前의 韓國上代社會相」, 『崇山朴吉眞博士華甲紀念 韓國佛敎思想史』, 원광대 출판국, 18~20쪽.

36) 장지훈, 1995, 「三國時代 彌勒信仰流行의 社會的背景」, 『震檀學報』 79, 8~20쪽.

보호 방어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왕은 국가를 보호 방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불교의 護國思想을 신봉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불교 신앙이 두터웠던 당시의 왕들은 護法이 곧 護國이라는 불교의 護國思想에 커다란 위안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위안 정도가 아니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사상적 정신적 지주를 발견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당시의 신라 왕은 불교의 護國思想을 열렬히 신봉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봉된 불교의 護國思想의 근본은 '護法이 곧 護國'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해야 국가가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은 전쟁이라는 당시의 상황에서 국가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왕으로 하여금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실천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 불교의 護國思想이 요구하는 正法治國思想을 자신들의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확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통치 이념을 모색하고 있었던 당시의 요구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불교의 호국 사상은 전쟁과 침략으로부터의 국가 보호와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사상적 비전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라 왕으로 하여금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정책을 실시하게 한 것이다.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적 統治理念의 확립은 당시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일반 민중으로부터 폭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백성들의 이익과 안락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국왕의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적 統治理念의 확립은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는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상하 계층을 초월한 폭 넓은 사회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신라의 花郎制度이다. 花郎制度는 진흥왕이 나라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良家の 덕

행 있는 남자를 선발하여 花郎이라고 개칭한 데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어진 재상과 충성된 신하가 여기서 배출되고 뛰어난 장사와 용감한 군사가 이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술선수 범하는 모범을 보인 화랑들이었다. 진흥왕 때의 花郎이었던 사다함은 전쟁에서의 공로로 加羅人口 삼백 명을 하사받았는데 그는 이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놓아 주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또 다시 田地를 하사하니 그는 굳게 이를 사양하였다. 왕이 꼭 주려고 하니 그는 앞전의 불모지를 청할 따름이었다.³⁷⁾ 이러한 훌륭한 태도는 아마도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비와 보시의 마음은 불교 正法治國思想의 근본 정신인 것이다. 또한 전쟁에서의 용감한 전투 정신과 행동은 화랑들의 護國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 것인가를 잘 보여 준다. 화랑들의 이러한 자비 보시의 정신과 護國 정신을 결부시켜 볼 때 화랑들의 사상과 행동에는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의 護國思想이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치원의 鸞郎碑序文에 모든 민중과 접촉하여 이들을 교화하였다는 기록이 있듯이 화랑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사회 통합의 기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이 전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백성들과의 의사 소통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사회 계층을 초월한 폭 넓은 유대감 형성을 꾀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의 護國思想에 토대를 둔 화랑의 모범적인 정신과 행동은 지배 계층에 대한 일반 백성들의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지배 계층에 대한 신뢰는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결국 불교의 護國思想이 신라사회 통합의 중요한 사상적 중심점이 될 수 있었다.

37) 『三國史記』 列傳 4 斯多舍.

5.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불교 護國思想의 근본 요체는 護法即護國이라고 하는 것이다. 護法을 해야 護國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護法即護國의 핵심 요체는 正法治國思想이다. 왕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해야 나라가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의 護國思想은 왕으로 하여금 正法治國思想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국가 사회에 실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正法治國思想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 평등의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불교의 護國思想은 불교의 근본 정신인 자비와 보시 평등 정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시키기 위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비와 보시의 극치는 남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은 바로 왕에게 이러한 보살행의 실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正法治國思想에서 요구하는 왕의 모습은 초월적이고 신성한 지위를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일반 백성과 하등 다를 바 없는 평등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백성에게 봉사할 것을 요구한다. 왕의 존재 의의는 오직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이다. 그래서 평등한 입장에서 일반 백성을 위해 봉사할 때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護國思想은 지배 계층의 특권만을 옹호해 줄 수 있는 사상이 아니다. 나라 전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야 한다는 것이 불교 護國思想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렇지 않고 지배 계층의 특권만을 옹호하고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옹호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지배 계층의 특권이 아니고 일반 백성의 이익과 안락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 護國思想의 근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교의 護國思想이 신라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의 護國思想이 당시에 새로운 통

치 이념을 확립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었던 신라 왕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모델, 모범을 제시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국가 사회를 책임지고 경영해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統治理念의 확립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당시는 무엇인가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 매우 요청되는 시기였다. 삼국이 정립되면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복 전쟁과 古代國家의 발달로 인한 체제 개편으로 삼국의 사회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유대 관계, 사상적 문화적 가치 규범과 행동 윤리 등이 크게 해체되면서 변화되어 가는 사회 전환기였다. 따라서 국가 사회를 새롭게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와 가치 체계, 윤리 등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특히 국가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효과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였다. 이러한 때에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의 護國思想은 전쟁으로부터의 국가 보호와 새로운 統治理念의 확립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대한 사상적 비전을 동시에 제시해 줄 수 있었다. 즉 正法治國思想을 실천하면 나라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불교의 護國思想은 신라 왕들로 하여금 불교의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새로운 統治理念 확립에 크게 공헌할 수 있었던 것이다.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은 당시 불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일반 민중으로부터 폭 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그래서 피지배 계층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백성들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조는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상하 계층을 초월한 폭 넓은 사회 통합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신라 花郎이다. 花郎制度는 진흥왕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한 것이 바로 花郎들의 술선수범하는 모범적 행동이었다. 이러한 花郎들의 사상과 행동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던 것이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의 護國思想이다. 그런데 화랑 제도의 중요한 기능 중에는 사회 통

합의 기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랑들이 전국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반 백성들과의 의사 소통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사회 계층을 초월한 폭 넓은 유대감 형성을 꾀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교의 護國思想에 토대를 둔 화랑의 모범적인 정신과 행동은 일반 백성들의 지배 계층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신뢰도가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었다.

요컨대 불교의 護國思想은 正法治國思想에 입각한 불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을 가져왔고, 이러한 불교적 통치 이념의 확립은 일반 백성들의 폭 넓은 공감과 신뢰를 받아서 신라사회를 발전적으로 통합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